

중년 기혼여성의 용서수준 탐색

Exploration of Forgiveness Ability in Middle-aged Married Women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교육 전공
석사 최미옥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 전공
부교수 오윤자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 Hee University

Graduates : Mi Ok Choi

Major in Child & Family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Yoon Ja Oh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egree of forgiveness exercised by middle-aged married women. The subjects of the research were 345 married women selected randomly among inhabitants of Seoul. A research questionnaire was employed to gather information. The study results revealed four major patterns. First, they felt hurt by those to whom they were connected continuously in daily life, such as friends, colleagues, siblings, spouses. Second, the respondents stated that they would be very badly hurt and deeply wounded as a result of a hateful speech or suffering experience caused by people of immediate relations. Third, among the three sub-areas of forgiveness, forgiveness in cognitive category was the highest, followed by behavioral and emotional categories. Fourth, as far as the surrounding variables regarding the degree of forgiveness was concerned, physical health and happiness of the family were important while their age, gender, religion, economic levels, experience of forgiving others didn't make a difference at all.

주제어(Key Words): 용서(forgiveness), 용서-정서(emotion), 용서-인지(cognitive), 용서-행동(behavior), 중년 기혼여성(middle-aged married women)

I. 서론

대부분 중년기로 접어들게 되는 기혼여성은 신체 기능의 노화와 직장 및 가정에서의 위치 변화, 자아 성찰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삶의 형태가 변화하는 시기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기혼 여성은 발달의 전환기에 요구되는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에는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며 그렇지 못하게 되면 허무감, 우울감, 혹은 중년기의 위기감을 느낄 수 있다. 정혜선(2005)은 전환기 경험에서 중년 기혼여성은 신체적 변화와 다양한 생활사건, 역할구조 및 관계의 변화 등이 남성보다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또 이러한 발달적 경험들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Conway(2000)는 기혼여성의 21%가 결혼 초기 2년 간은 결혼생활에 매우 만족해하는 반면 20년 후에는 6%만이 여전히 만족한다고 언급(정혜선, 2005;재인용)하므로서 결혼지속연수가 자동적으로 생활의 만족을 형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급증하는 이혼율과 이혼 사유에 기초해 볼 때 역시 부부불화, 가족불화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기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년의 기혼여성은 대부분 가족생활을 재구성하는 시기를 맞이하여 기본적으로 부모·부부·자녀를 포함한 가족관계 형성, 시간·경제·주거 등을 포함한 가족자원 경영, 사회와의 맥락적 관계, 개인적 차원의 다양한 생애사건 등을 접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년 기혼여성은 특히 세대, 역할, 심리 정서, 주거공간 등의 중간적 위치에 존재하므로써 심리적·신체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할 뿐 아니라 삶에 대하여 양과 질적인 측면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중년 기혼여성은 개인과 가족생활 중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갈등, 상처, 분노와 밀접한 관계속에 놓이게 된다. 개인적 측면에서는 물론 가족관계 내에서 부부 및 가족구성원 전체와 관련하여 다양한 상황이 발생될 때에 중년 기혼여성은 직접 개입 및 해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되므로서 이중갈등 상황까지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중년 기혼여성은 자신과 가족의 안녕을 위하여 여러 입장을 이해함과 동시에 갈등과 상처를 해결하고 성장과 발달을 가져오는 중요한 인간적 능력으로서 용서를 종종 직·간접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그동안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제의 하나로 체념이나 자신을 부정하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방법으로서 용서를 사용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즉, 용서가 무엇이며 실제 행위라기 보다는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행동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특히 부부관계는 다른 관계 보다

정서적인 개입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에서의 상처 경험은 부정적인 정서가 되기 쉽다(서정선·신회천, 2007). 또한 이 부정적인 정서가 장기간 처리되지 못하고 지속될 때 개인의 심리적 안녕(well-being)을 훼손하게 되므로 관계 만족과 개인의 안녕감으로 가는 하나의 통로가 용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가족관계 또는 인간관계 갈등에서 발생하는 분노, 상처, 불편한 기억들을 해결하고 보다 근본적인 치유와 성장을 위한 용서심리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접근이 최근 부상하고 있다(Enright & Fitzgibbons, 2000). 예를들면, 부부를 중심으로 한 용서연구(Trainer, 1981; Coyle & Enright, 1997)에서 분노를 감소시키고 통제력을 증가시키며 높은 수준의 안녕감을 느끼게 한다고 지적하므로서 개인과 관계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용서의 효과를 보게 된다. 따라서 용서 수준과 가족관계는 중년 기혼여성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용서의 잠재적 특성에 대한 연구와 적용이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Enright & Zell, 1989; Huang, 1990; Freedman, 1994).

한편, 용서가 인간 생활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장 큰 이유는 부당한 개인의 상처를 치료해 주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준다는 많은 경험적 증거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Brakenhielm, 1993, Fitzgibbons, 1986, Trainer, 1981). 이러한 용서는 전통적으로 신학적, 철학적, 윤리적인 주제로 이해되면서 과학적 연구의 대상에서는 소외되어 왔으며 근래에 와서 역사, 문학, 법철학, 사회학, 정치학 등 여러 분야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김광수, 1999). 용서는 육체적 질병과 낮은 자존감, 우울, 분노, 무망감 등으로 인해 낮은 용서수준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문제점도 있으나 슬픔, 불안, 분노 및 복수하려는 것을 감소시키고 개인의 안녕을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 언급되기도 한다(Enright, Gassin, & Wu, 1992; Fitzgibbons, 1986; Hope 1987; Hunter, 1978; Smedes, 1984).

지금까지 용서에 관한 연구들은 성격과 같은 심리적 속성으로서의 용서 연구(Wade & Worthington, Jr., 2003), 용서를 촉진하거나 매개하는 심리적 개념에 대한 연구(McCullough, Worthington, Jr., & Rachal, 1997; Takaku, Weiner, & Ohbuchi, 2001), 용서에 따른 심리적 결과에 관한 연구(Sells & Hargrave, 1998; 김기범, 임효진, 2006), 용서 경험과 용서 프로그램 연구(Hebl & Enright, 1993; Freedman, 1994; 김광수, 1999; 박인희, 2000; 정종식, 2000; 오오현, 2001; 장화수, 2002; 김귀녀, 2002; 김희영, 김정희, 이연숙, 2004; 윤수정, 2004), 용서와 건강에 대한 연구(박종효, 2003), 용서와 결혼만족도(정혜선, 2005; 서정선

신희천, 2007) 등이다.

중년 기혼여성과 관련하여 용서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개인과 가족관계의 갈등과 같이 가족체계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용서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용서과정을 통하여 용서라는 도덕적 덕목을 향상함으로써 중년 기혼여성의 갈등과 어려움을 예방하고 심리정서적 건강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최근 들어 전문가가 개입하여 용서과정을 경험하게 하므로써 부부관계 또는 가족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모습을 다양한 장면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또한 회복을 넘어서 가족생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내적 준비를 통하여 상처 예방과 성장을 돕는 용서에 관련된 연구와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족생활과 관련하여 다중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년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용서 관련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용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깊고 부당한 상처를 준 사람과 상처의 내용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강한 가족생활의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년 기혼여성의 용서수준을 탐색하는데 있다. 결혼을 통하여 개인적인 측면에 가족관계적 측면이 추가된 상황에서 갈등과 상처,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한 하나의 기제로서 중년 기혼여성 대상의 용서수준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개인 및 가족의 건강을 위한 용서전략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써 건강한 가족생활을 위한 새로운 내용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보는 바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중년 기혼여성의 용서의 경험 여부 및 용서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고 배경변인에 따른 용서수준 차이를 전체와 하위영역 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용서의 개념 및 과정

용서는 그 개념 속에 내재되어 있는 종교적, 철학적 특성 때문에 그동안 학문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용서에 대한 경험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1980년대에 시작되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고통 받는 내담자의 치유와 내적 성장을 위해서 용서의 능력을 발달시킬 방법들이 탐색되어 왔다. 이러한 시도는 용서가 종교적 또는 윤리적인 덕목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문제해결과 개인의 성장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및 상담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Fitzibbons, 1986; Hope, 1987; Worthington & DiBlasio, 1990; McCullough & Worthington, 1999). 용서에 대한 이

해는 최근 통합적 관점에서 용서를 정의해 온 Enright와 Human Development Study Group(1991b)의 작업에서 체계화되고 있다.

용서 개념의 이해를 위하여 정의를 살펴보면, 국어사전에 서의 용서는 잘못이나 죄를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끝냄이라고 설명되어 있고, Webster사전(1996)에 의하면 용서는 상대에 대해 분노를 느끼는 것을 멈추거나 상대를 관대히 봐주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Trainer(1981)는 용서란 분노와 부정적 정서가 감소하고 관계 향상을 수반하는 가해자에 대한 인지적·정서적 변화라고 하였다. 이경순(1998)은 용서에 대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잘못이나 죄를 꾸짖거나 벌하기를 멈추고 가해자에 대한 원한을 풀거나 보복을 포기하는 자발적인 선택, 결정 혹은 행동이라고 언급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인간관계내의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이 용서라고 밝히고 있다(김광수, 2002).

일반적으로 용서는 가해자를 향한 원한을 풀며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 관계를 회복하며 내적인 정서적 상처를 치유하는 것(DiBrasio & Proctor, 1993), 가해자를 가능한 보복으로부터 해방되게 하는 것(Fitzgibbons, 1986; Smedes, 1994)으로 정의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함께 용서는 깊고 부당한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하여 갖는 부정적인 판단, 감정, 행동반응을 극복하고 상대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 감정, 행동반응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Gassin, 1995). 또 다른 경우에는 용서에 관하여 관계에 대한 현실적이고 왜곡되지 않은 조화로운 관점을 가지는 것과 상대방을 처벌하지 않기를 원하는 학습된 소망을 가지는 것으로 개념화하였다.

한편, 개인적 차원에서 용서는 한 개인이 부당하게 입은 깊은 상처를 치료해 주어 그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점(Hope, 1987; Smedes, 1984; Enright & Fitzgibbons, 2000; 박종효, 2003; 오영희, 2006)에서 개인 내적 본질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갈등과 상처로 인해 파괴된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줌으로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준다는 점에서 대인관계적 특성을 갖기도 한다(Gouldner, 1973).

요약하면 용서의 개념은 Enright등에 의해 학문적으로 개념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용서는 상대를 용서하는 개인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에 대하여 정서, 인지, 행동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용서에 대한 경험적 연구

이경순(2002)은 용서개념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서 자발성(voluntariness), 서로가 용서할 때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호혜성(reciprocality), 용서는 상처가 아프다고 느

끼면서부터 시작된다는 점(hurt)을 설명하였다. 즉, 용서를 통해 상처가 치유된다는 점(healing), 용서는 인간의 힘으로만은 불가능하다는 점(working of divine power),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elapse of time)을 용서 개념의 속성으로 주장하였다. Enright *et al.*(1991a)은 기존의 종교, 철학 문헌에 대한 분석과 North(1987)의 개념에 기초하여 용서는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판단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이러한 판단과 감정을 가질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럴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자비, 동정심 심지어 사랑으로 대하려고 노력하는 인지, 정의, 행동적 반응의 복합체라고 이해하였다.

Enright *et al.*(1996)은 한 사람이 용서를 할 때 용서에는 상대에 대한 부정적 정서(분노, 미움, 증오, 원한, 슬픔 등), 인지(비난, 비판 등 판단), 행동(복수, 처벌 등)이 사라지고 긍정적 정서(부정적 감정의 소멸, 동정심, 사랑 등), 인지(비판 단적, 상대가 잘되기를 바램 등), 행동(도움을 주고자 함, 화해하고자함 등)이 나타나는 반응이 포함된다고 언급하였다.

용서가 인간의 정서와 안녕에 있어서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며 개인의 통제력을 회복시켜주고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화해를 촉진시켜 준다는 주장과 함께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Brakenhielm(1993)은 용서는 더 많은 행복과 기쁨을 증진시킨다고 하였으며 Studzinski(1986)는 진정한 용서의 실천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며 평화를 얻게 한다고 하였다. Al-Mabuk(1990)은 용서는 상처받은 개인의 심리적 건강과 안녕의 회복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또한 강력한 치료적 체계로서 개인의 변화와 성장을 증진시키고 창조성과 활력을 강화하며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한다고 하였다. Trainer(1981)는 여러 가지 종류의 용서에 대해 언급하면서 진정한 용서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를 존중하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심리적인 힘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다른 측면에서 용서의 정서적 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 가운데 용서와 관련된 변인들을 보면 부정적 정서로서 우울, 불안, 분노, 슬픔 등과 긍정적 정서로서 자존감, 자아 효능감, 희망 등이 있다(Hebl & Enright, 1993; Al-Mabuk, 1990; Freedman, 1994; Gassin, 1995; Coyle & Enright, 1997).

또한 중년 기혼 여성과 관련하여 볼 때, 용서는 가족간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부부와 가족치료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Al-Mabuk, Enright & Cardis, 1995; Enright & Fitzgibbons, 2000; Guest, 1988; Murray, 2002). 김귀녀(2002)는 기혼여성 대상으로 8회기 부부용서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통제집단에 비해 분노가 감소되었음을 언급하였다. 배미자(2003), 정혜선(2005) 등은 용서와 결혼만족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정혜선(2005)은 의사소통과 용서 역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면서 부부 대화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서정선 외(2007)는 개인 내적인 변화에 초점을 두기 보다 용서의 대인관계적 측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오영희(2006)는 사람들은 가족이나 부부와 같이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Reed & Enright(2006)는 용서효과에 대하여 배우자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받은 여성들이 비교집단에 비하여 자존감, 환경에 대한 통제감, 삶의 의미 찾기 등의 긍정적인 요소에서 의미있는 향상을 지적하였다. 반면, 불안, 우울,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등의 부정적 요소들에서는 유의미한 감소가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용서관련 기존 연구들이 다루지 않았던 중년 기혼여성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위하여 배경변인에 따른 용서수준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및 표집

본 연구는 서울 거주 중년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임의표집하였으며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350명의 질문지 중 최종 분석에 345부의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는 기독교, 40 대, 가족 경제수준은 중, 가족이 신체적으로 건강하며 또한 행복하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용서는 개인의 특성이 상호작용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상황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주관적 경험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황으로서 용서 경험을 조사하였다. 가해자로서의 용서 경험은 없는 경우가, 피해자로서의 용서경험은 많다는 것이 높게 나타났다.

2. 측정 도구

용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Enright Forgiveness Inventory(EFI)를 김광수(1999)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심각하고 부당하게 심리적 혹은 신체적 상처를 준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에 대하여 어떤 정서, 인지, 행동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3개의 하위영역으로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상대방에 대하여 정서영역 20개 문항, 행동영역 20개 문항, 인지영역 20개 문항의 총 60 문항으로 5점 Likert 형 척도로 구성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그/그녀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하다”(정서), “나는 그/그녀에게 우정을 보인다”(행동), “나는 그/그녀가 행복해지기를 바란다”(인지)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배경변인	구분	빈도	%
연령	20대~30대	92	26.7
	40대	217	62.9
	50대 이상	36	10.4
	합계	345	100.0
종교	기독교	114	33.0
	천주교	82	23.8
	불교	46	13.3
	종교없음	95	27.5
	기타	8	2.3
	합계	345	100.0
주관적 가족경제수준	상	112	32.7
	중	193	56.3
	하	38	11.1
	합계	343	100.0
주관적 가족신체 건강정도	건강하지 않다	12	3.5
	보통이다	76	22.0
	건강하다	257	74.53
	합계	345	100.0
주관적 가족 행복 정도	행복하지 않다	7	2.0
	보통이다	61	17.7
	행복하다	277	80.3
	합계	345	100.0
가해자로서 용서경험	없다	135	39.1
	보통이다	110	31.9
	있다	100	29.0
	합계	345	100.0
피해자로서 용서경험	없다	101	29.3
	보통이다	120	34.8
	있다	124	35.9
	합계	345	100.0

〈표 2〉 상처의 경험을 준 가해자

구분	빈도	%
배우자	55	16.2
부모	24	7.1
형제	43	12.7
친척	24	7.1
선생님	1	0.3
친구	71	20.9
선후배	16	4.7
직장동료	45	13.3
기타	60	17.7
전체	345	100.0

〈표 3〉 상처 경험

(n=345)

문항	평균	표준편차
그 일이 생겼을 때 상처를 심하게 받았습니까	4.09	.84
문제(갈등)가 일어나기 전 그 사람과 가까웠습니까	3.65	1.09
그 문제(갈등)는 나에게 심각한 문제였습니까	3.71	1.09
자신이 그러한 상처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까	2.22	1.17

3. 분석방법

본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하여 SPSS 12.0 Windows Program를 이용하였으며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 계수 산출 둘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위하여 빈도, 백분율 산출 셋째, 조사대상자의 용서수준의 경향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넷째, 배경변인에 따른 용서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ANOVA 및 사후검증으로 Scheffe-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용서 경험

1) 상처에 관한 일반적 사항

상처를 준 가해자에 대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조사대상자들은 친구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는 응답이 20.9%로, 기타 응답이 17.7%, 배우자가 16.2%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이 계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상처경험에 대한 결과는 〈표 3〉에 나타나 있

는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용서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용서수준 측정 문항 외에 추가적으로 상처 사건에 대한 배경정보를 묻는 질문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처를 준 사람(1개 문항) 및 상처 경험과 관련된 내용(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즉, 가까운 사람으로 자신에게 부당하고 깊은 상처를 준 한 사람에 대하여 가장 최근의 경험을 중심으로 당시 느낌을 갖도록 노력하며 질문에 응답하게 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전체 용서수준의 Cronbach's α 값은 .98, 하위영역별로 정서영역 .96, 행동영역 .94, 인지영역 .96으로 나타났다.

〈표 4〉 용서수준의 경향 (n=345)

용서	평균	표준편차
정서영역 전체	2.94	.89
행동영역 전체	3.14	.76
인지영역 전체	3.32	.90
용서 전체	3.13	.79

다. 조사대상자들은 본인의 잘못이 없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매우 심각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용서수준에 대한 일반적 경향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용서척도에 의한 용서수준은 크게 정서, 인지, 행동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측정하였다. 〈표 4〉를 살펴보면 용서수준의 하위영역 중 인지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나 용서에 대한 생각이나 바람 등에 있어서는 용서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 배경변인에 따른 용서수준 차이

1) 배경변인에 따른 전체 용서수준 차이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에 따른 전체 용서수준 차이 검증

〈표 5〉 배경변인에 따른 용서수준 전체 차이

조사대상자 배경변인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사후검증
연령	20대~30대	92	3.25	1.327	0.267	
	40대	217	3.10			
	50대 이상	36	3.07			
	합계	345	3.13			
종교	기독교	114	3.24	2.104	0.100	
	천주교	82	2.96			
	불교	46	3.16			
	종교없음	95	3.13			
	합계	337	3.13			
주관적 가족경제수준	상	112	3.25	2.145	0.119	
	중	193	3.08			
	하	38	3.02			
	합계	343	3.13			
주관적 가족신체건강정도	건강하지않다	12	3.47	7.598	0.001***	a
	보통이다	76	2.84			b
	건강하다	257	3.21			ab
	합계	345	3.13			
주관적 가족행복정도	행복하지않다	7	3.87	4.503	0.012**	a
	보통이다	61	2.97			b
	행복하다	277	3.15			b
	합계	345	3.13			
가해자로서 용서경험	없다	135	3.07	0.968	0.381	
	보통이다	110	3.13			
	있다	100	3.22			
	합계	345	3.13			
피해자로서 용서경험	없다	101	3.06	0.785	0.457	
	보통이다	120	3.19			
	있다	124	3.15			
	합계	345	3.13			

*p<0.1 **p<0.05 ***p<0.01

〈표 6〉 배경변인에 따른 용서수준 - 정서영역 차이

조사대상자 배경변인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사후검증
연령	20대~30대	92	3.20	0.75	0.503	0.605	
	40대	217	3.11	0.79			
	50대 이상	36	3.16	0.58			
	합계	345	3.14	0.76			
종교	기독교	114	3.30	0.78	3.768	0.011**	a
	천주교	82	2.94	0.73			b
	불교	46	3.15	0.80			ab
	종교없음	95	3.09	0.72			ab
	합계	337	3.13	0.76			
주관적 가족경제수준	상	112	3.29	0.74	3.947	0.020**	a
	중	193	3.08	0.74			ab
	하	38	2.96	0.84			b
	합계	343	3.14	0.76			
주관적 가족신체건강정도	건강하지않다	12	3.53	0.76	7.262	0.001***	a
	보통이다	76	2.87	0.76			b
	건강하다	257	3.20	0.74			ab
	합계	345	3.14	0.76			
주관적 가족행복정도	행복하지않다	7	3.67	0.83	4.628	0.010**	a
	보통이다	61	2.92	0.74			b
	행복하다	277	3.17	0.75			b
	합계	345	3.14	0.76			
가해자로서 용서경험	없다	135	3.06	0.70	1.685	0.187	
	보통이다	110	3.15	0.81			
	있다	100	3.24	0.77			
	합계	345	3.14	0.76			
피해자로서 용서경험	없다	101	3.03	0.69	1.520	0.220	
	보통이다	120	3.17	0.80			
	있다	124	3.19	0.77			
	합계	345	3.14	0.76			

*p<0.1 **p<0.05 ***p<0.01

결과는 〈표 5〉와 같다.

용서수준 전체에서 차이를 보인 배경변인은 주관적 가족의 신체 건강정도 및 가족의 행복정도였다. 가족의 신체적 건강정도에 따라서는 건강하지 않은 집단의 용서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의 행복정도에 따라서는 행복하지 않은 집단이 용서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배경변인에 따른 용서수준-정서영역 차이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에 따른 용서수준 하위 정서영역의 차이검증 결과는 〈표 6〉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에 따

라 용서수준의 정서영역에 차이를 보인 배경변인은 종교, 주관적 가족경제수준, 주관적 가족 신체건강정도, 주관적 가족 행복정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기독교 집단과 가족경제수준이 상인 집단이 정서영역 용서수준이 가장 높았고, 가족의 신체 건강정도에서는 보통집단의 정서영역 용서수준이 가장 낮은 반면에 건강하지 않은 집단이 정서영역 용서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 행복정도에서는 행복하지 않은 집단이 가장 높았다. 본 결과는 정교화된 용서개념의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깊은 상처를 준 상대방에 대하여 느끼는 것을 주로 묻고 있으므로 다소 피상적인 수준의

〈표 7〉 배경변인에 따른 용서수준 - 행동영역 차이

조사대상자 배경변인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사후검증
연령	20대~30대	92	3.09	0.93	1.792	0.168	
	40대	217	2.90	0.93			
	50대 이상	36	2.85	0.56			
	합계	345	2.94	0.90			
종교	기독교	114	3.02	0.90	1.675	0.172	
	천주교	82	2.75	0.82			
	불교	46	3.03	1.08			
	종교없음	95	2.96	0.89			
	합계	337	2.94	0.91			
주관적 가족경제수준	상	112	3.01	0.89	0.588	0.556	
	중	193	2.89	0.89			
	하	38	2.98	1.02			
	합계	343	2.94	0.90			
주관적 가족신체건강정도	건강하지 않다	12	3.25	0.87	5.578	0.004***	a
	보통이다	76	2.65	0.83			ab
	건강하다	257	3.01	0.91			b
	합계	345	2.94	0.90			
주관적 가족행복정도	행복하지 않다	7	3.70	1.12	3.363	0.036**	a
	보통이다	61	2.79	0.75			b
	행복하다	277	2.96	0.92			b
	합계	345	2.94	0.90			
가해자로서 용서경험	없다	135	2.85	0.87	1.113	0.330	
	보통이다	110	2.98	0.96			
	있다	100	3.02	0.87			
	합계	345	2.94	0.90			
피해자로서 용서경험	없다	101	2.86	0.87	0.821	0.441	
	보통이다	120	3.01	0.94			
	있다	124	2.95	0.89			
	합계	345	2.94	0.90			

*p<0.1 **p<0.05 ***p<0.01

용서개념을 가지고 응답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용서는 문제 자체 보다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사람의 강점과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서정선, 신희천, 2007)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배경변인에 따른 용서수준-행동영역 차이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에 따른 용서수준 하위 행동영역의 차이검증 결과는 〈표 7〉과 같다. 주관적 가족 신체건강정도, 가족 행복정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주관적 가족 신체건강정도에 따른 행동영역 용서수준 차이는 건강하

지 않은 집단의 용서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건강수준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집단의 용서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가족의 행복정도에 따른 행동영역 용서수준 차이는 행복하지 않은 집단의 용서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결과는 용서의 효과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용서과정에서 전문적인 교육적 개입이 이루어질 때에 불안, 분노, 슬픔 등 부정적인 감정들이 감소되었다(김광수, 1999; 김귀녀, 2002; Freedman & Enright, 1996; 박종효, 2002). 즉, 전문가가 개입하여 상처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동시에 용서와 관련된 논의를 하게 하므로서 가지고 있던 현재 문제의 개선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개

〈표 8〉 배경변인에 따른 용서수준 - 인지영역 차이

조사대상자 배경변인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사후검증
연령	20대~30대	92	3.45	0.90	1.466	0.232	
	40대	217	3.28	0.92			
	50대 이상	36	3.21	0.61			
	합계	345	3.32	0.89			
종교	기독교	114	3.41	0.82	1.068	0.363	
	천주교	82	3.18	0.87			
	불교	46	3.31	1.07			
	종교없음	95	3.32	0.90			
	합계	337	3.31	0.89			
주관적 가족경제수준	상	112	3.46	0.80	2.812	0.061*	a
	중	193	3.26	0.88			ab
	하	38	3.13	1.08			b
	합계	343	3.31	0.89			
주관적 가족신체건강정도	건강하지 않다	12	3.63	0.66	7.201	0.001***	a
	보통이다	76	2.99	0.88			b
	건강하다	257	3.40	0.88			ab
	합계	345	3.32	0.89			
주관적 가족행복정도	행복하지 않다	7	4.23	0.60	4.455	0.012**	a
	보통이다	61	3.18	0.80			b
	행복하다	277	3.33	0.90			b
	합계	345	3.32	0.89			
가해자로서 용서경험	없다	135	3.31	0.87	0.499	0.608	
	보통이다	110	3.27	0.96			
	있다	100	3.39	0.83			
	합계	345	3.32	0.89			
피해자로서 용서경험	없다	101	3.28	0.92	0.387	0.679	
	보통이다	120	3.38	0.91			
	있다	124	3.30	0.84			
	합계	345	3.32	0.89			

*p<0.1 **p<0.05 ***p<0.01

인적인 차원에서 전통, 문화, 개인적 특성에 기초한 용서행동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적합한 용서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용서 행동으로 인하여 신체적 건강정도 또는 주관적인 행복정도가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4) 배경변인에 따른 용서수준-인지영역 차이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에 따른 용서수준 하위 인지영역의 차이검증 결과는 〈표 8〉과 같다. 배경변인에 따른 인지영역의 용서수준 차이는 주관적 가족 경제수준, 신체 건강정도, 가족 행복정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가족 경제수준이 하위 집단의 경우 인지영역의 용서수준이 가장 낮은 반면에 상위 집단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신체건강정도에 따른 인지영역의 용서수준은 보통집단이 가장 낮은 반면에 건강하지 않은 집단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행복정도 역시 행복하지 않은 집단의 용서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결과 역시 용서가 정서, 행동, 인지적으로 연계되는 과정에 있어서 정서와 행동과는 분리된 도덕적, 윤리적 바람과 기대를 가지고 용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과를 요약해 보면 용서수준 하위 정서영역, 행동영역, 인지

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배경변인은 주관적 가족 신체건강정도와 가족 행복정도로 나타났다. 반면에 연령, 가해자로서 용서 경험, 피해자로서의 용서 경험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배경변인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족의 경제수준에 따라 행동 영역과 인지영역의 용서수준에 차이를 보였으며, 종교에 따라서는 정서영역의 용서수준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서울 거주 기혼여성 345명을 대상으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용서수준의 경향 및 상처경험, 배경변인에 따른 용서수준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조사대상자들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본인의 잘못 없이 매우 심각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둘째, 조사대상자들은 용서수준의 세 가지 하위영역 중 인지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행동영역, 정서영역 순이었다. 셋째, 배경변인에 따른 용서수준 차이에 있어서 전체 및 하위영역인 정서, 행동, 인지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배경변인은 주관적인 가족의 신체 건강정도와 가족 행복정도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논의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이 계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본인의 잘못이 없다는 생각 아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심각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점이다. 오영희(2006) 역시 사람들은 가족, 부부와 같이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다고 하였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상처 경험은 관계 내에 있는 개인들에게 우울, 불안, 분노를 유발하게 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 한편, 친구 및 배우자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기초하여 볼 때 친밀한 관계에서는 어떤 것도 이해될 수 있다는 비합리적 신념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친밀성이 용서를 수월하게 촉진할 수도 있으므로 용서수준과 관련된 변인, 관계 등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대인관계와 가족관계에 있어서 친밀한 관계 및 부부관계에 초점을 둔 관계향상을 위한 상담 및 전문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즉, 명확한 역할 경계, 자아분화수준의 향상 등을 통하여 친밀한 관계에서의 개인적 차원과 관계적 차원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학습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김광수(1999)는 용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부당한 상처 경험에서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을 직면하고 이를 표현하면서 점차 그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둘째, 용서수준의 세 가지 하위영역 중 인지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인의 사회적 특성으로 볼 때 은근함, 체면의식, 사양지심 등 눈에 보이고 관찰 가능한 구체적인 행동적 측면 보다는 상대방에 대하여 관찰이 가능하지 않은 심리적 기제를 사용하는 것이 오랜 기간 덕목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사회변화와 함께 가치를 실현하는 태도 또는 방식이 달라지면서 적절한 자기노출이나 개방이 신체적 건강과 심리정서적 건강을 위한 요소들이 되어오고 있다. 이와같이 가치관과 행동에 있어서 과도기적 입장으로 중간 세대인 중년 기혼여성은 실천적인 행동으로서의 용서를 할 수 없거나 용서하기 어려울 수 있다. 동시에 인지적으로 용서를 해야 하는 생각과 바람을 통해 죄의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반면 최근 급부상한 인지상담이론적 입장에서 볼 때 본 결과는 바람직한 인간 행동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서정선과 신희천(2007)의 연구에서 용서에 대한 성차가 발견되었는데 남편이 더 용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용서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부인 용서는 자기 자신 뿐 아니라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본 연구결과에서 중년 기혼여성이 대상이므로 인지영역의 용서수준이 높은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주관적인 가족 신체건강정도가 나쁜집단이, 가족의 주관적 행복정도에 있어서 행복하지 않은 집단이 동일하게 용서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Enright (2001; 채규만 역, 2004)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용서가 선택될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용서는 이타적이기보다 이기적일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서정선과 신희천(2007)의 연구에 용서에는 진정한 용서와 거짓용서가 있으므로 용서의 진정성에 대한 구분을 지적인 바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Enright *et al.*(1989, 1991b)는 용서의 조건에 대해서 용서는 복수로서의 용서, 보상적 용서, 사람들의 기대에 따른 용서, 종교적 내지 합법적 기대에 따른 용서, 사회적 조화로서의 용서, 사랑으로서의 용서로 발달해 나간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랑으로서의 용서만이 진정한 용서라고 하면서 무조건적인 용서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진정한 의미의 용서와 일상적인 의미의 용서가 구분되어야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대부분의 경우 용서에 관하여 그냥 지나치거나 포기, 체념, 묵과하는 것으로 혼동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용서수준의 정서영역은 느낌에 기초하여 문항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상호작용적이라기 보다는 비교적 일방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추론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김희영 외 2인, 2004) 역시 용서 프로그램을 통한 분노, 불안, 우울에 관한 성과를 살펴보면 감소된 경우도 있으

나 약 45% 정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관된 분명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연구자에 의해 수행된 연구결과 (McCullough & Worthington, 1999; McCullough, Bellah, Kilpatrick, & Johnson, 2001)에서 삶에 만족하는 사람이 용서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용서했다고 해서 삶의 만족이 향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일반적이지 않은 본 연구결과의 일부에 기초하여 볼 때 용서의 유형을 분류하여 살펴보는 측면 역시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용서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실제 상황에서 일치된 용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서구 문화적 맥락에 기초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험과학적 패러다임 안에서 정의 내린 용서에 바탕을 두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용서가 어떻게 전개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에 한국적 용서의 개념, 경험, 분석이 논의될 수 있도록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은 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용서에 관하여 용서하기에만 한정되어 있으므로 용서받기 내지 자기용서에 대한 부분 역시 함께 다루어져야 용서에 대한 일반화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먼저 용서의 개념이나 기능에 대한 정교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설문조사시 회의를 통하여 질문에 응하는 기초과정을 조사대상자들에게 엄격하게 설명을 하였음에도 용서 문항들에 대한 익숙치 않음이나 정서·행동·인지라는 영역 구분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중년 기혼여성 과 관련된 용서 연구의 비교 분석이 어려운 점이다. 관련 연구로서는 김광수(1999, 대학생 이상 성인의 용서교육 프로그램), 김귀녀(2002, 기혼 여성 대상 부부용서프로그램, 분노와 갈등), 배미자(2003, 부부갈등대처, 용서, 결혼만족도), 정혜선(2005, 의사소통, 용서, 결혼만족도), 서정선·신희천(2006, 용서, 결혼만족) 등의 연구에 불과할 뿐 아니라 용서의 경향, 배경변인 관련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된 용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고영인(1994). 대학생의 분노표현양식과 우울 및 공격성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광수(1999). 용서 프로그램 개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광수(2002). 용서연구의 동향과 과제. *교육심리연구*, 16(2), 113-131.
 김귀녀(2002). 부부 용서프로그램이 분노 및 갈등해결 방식과 배우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기범, 임효진(2006). 대인관계 용서의 심리적 과정 탐색: 공감과 사과가 용서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20(2), 19-33.
 김수영(2004). 용서수준과 자기개념에 관한 연구: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지애(2005). 용서수준에 따른 자아개념과 무망감우울증.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희영, 김정희, 이연숙(2004). 용서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용서 정도와 분노, 불안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분산형 집단상담과 집중형 집단상담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3), 347-366.
 노승수(1999). 용서프로그램이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인희(2000). 용서교육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용서수준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재연(1993). 종교성향과 정신 건강간의 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종효(2002). 공격적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효과 비교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박종효(2003). 용서와 건강의 관련성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301-322.
 방미숙(1994). 문제에 대한 종교적 대처양식과 그 효율성.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배미자(2003). 부부갈등대처 및 용서와 결혼만족도.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정선, 신희천(2007). 용서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델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1), 87-106.
 신기영(1991). 중년기 주부의 위기감과 사회적 관계망 지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혜영(2004). 그리스도인의 용서에 수치심이 미치는 영향. *합동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영희(1990). 용서의 발달: 친구사이의 용서를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4(2), 247-273.
 오영희(2006). 한국인의 상처와 용서에 대한 조사. *교육심리연구*, 20(2), 467-486.
 오오현(2001). 기독교인 용서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수정(2004). 용서간호중재 프로그램이 진행성 여성암 환자의 용서와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 고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영숙(2004). 기독교인 용서상담 프로그램이 목회자 부인들의 용서, 분노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향금(2003). 용서중심의 내적치유 상담효과에 관한 사례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순(1998). 용서 개념분석. *정신간호학회지*, 7(2), 325-333
- 이경순(2002). 용서-현상학적 접근. *정신간호학회지*, 11(3), 388-397.
- 이경희(1997). 중년기 기혼여성의 역할적응과 자아정체감 형성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화수(2002). 용서교육 프로그램이 실업계 남자 고등학생의 용서, 불안, 분노 및 우울 수준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종식(2000). 용서를 통한 크리스찬 대학생의 인간관계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원광대학교연구*, 19, 421-449.
- 정혜선(2005). 중년기 여성의 의사소통 및 부부용서와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미정(1993). 중년기 여성의 어머니 역할 수행부담과 심리적 복지.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혜규(2004). 이혼 후 전배우자에 대한 집착 및 적대감, 협력적 부모역할,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bramson, L. Y., Seligman, M., E. P., & Teasdale, J. D. (1978). Learned helplessness in humans: Critique and reformul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7, 49-74.
- Al-Mabuk, R., H. (1990). The commitment to forgive in parently love-deprived college students.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Al-Mabuk, R., H., Enright, R. D., & Cardis, P. A.(1995). Forgiveness education with parently love-deprived late adolescents. *Journal of Moral Education*, 24(4), 427-444.
- Alshuler, C. F., & Alshuler, A. S.(1984). Developing Healthy Responses to Anger; the Counselor's Role.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63(1), 26-29.
- Averil, J. R.(1982). Anger and Aggression: An Essay on Emotion. New York: Springer-Verlag.
- Bandler, R., & Grinder, J.(1982), Reframing: Neuro-linguistic programming and transformation of meaning. Moab: Real people.
- Bergin, A. E.(1998). Three contributions of a spiritual perspective to counseling, psychotherapy, and behavioral change. *Counseling and Values*, 33(1), 21-31.
- Berkowitz, L. (1993). *Aggression: It's Causes, Consequences, and Control*. New York : McGraw-Hill.
- Brakenhielm, C. R.(1993). *Forgiveness*. Minneapolis: Fortress Press.
- Brandsma, J. M.(1982). Forgiveness: A dynamic, theological, and therapeutic analysis. *Pastoral Psychology*, 31(1), 40-50.
- Coyle, C. T., & Enright, R. D.(1997). Forgiveness intervention with post-abortion m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5(6), 1042-1046.
- DiBlasio, F. A. (1992). Forgiveness in psychotherapy: A comparison of younger and older therapists.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11, 181-187.
- DiBrasio, F. A., & Proctor, J. B.(1993). Therapists and the clinical use of forgivenes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1(2), 175-184.
- Enright, R. D. (2004). *Forgiveness is a choice*. 용서는 선택이다. 채규만 역. 서울: 학지사(2001).
- Enright, R. D., & Fitzgibbons, R. P.(2000). *Helping clients forgive*.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Enright, R. D., Gassin, E. A., & Wu, C. (1992). Forgiveness: A development view, *Journal of Moral Education*, 21(2), 99-114.
- Enright, R. D., & Human Development Study Group(1991a). *The moral development of forgiveness*. In W. Kurtines and J. Gewirtz(Eds.), *Handbook of moral behavior and development* 1. 123-152. Hillsdale, NJ:Erlbaum.
- Enright, R. D., & Human Development Study Group(1991b). Five points on the construct of forgiveness within psychotherapy. *Psychotherapy*, 28, 493-496.
- Enright, R. D., & Human Development Study Group(1994). Piaget on the moral development of forgiveness. *Human Development*, 37, 63-80.

- Enright, R. D., & Human Development Study Group. (1996). *Counseling within the forgiveness triad: On forgiving, receiving forgiveness and self-forgiveness. Counseling and Values, 40*, 107-125.
- Enright, R. D., & Zell, R.(1989). Problems encountered when we forgive one another.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8*, 52-60.
- Fitzgibbons, R. P.(1986). The cognitive and emotive use of forgiveness in the treatment of anger. *Psychotherapy, 23*, 629-633.
- Freedman, S. A.(1994). *Forgiveness education with incest surviv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Freedman, S. R., & Enright, R. D.(1996). Forgiveness as an intervention goal with incest survivo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5), 983-992.
- Gassin, E. A.(1995). *Social Cognition and forgiveness in adolescents romance: An intervention stud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 Gouldner, A. W.(1973). *For sociology: Renewal and critique in sociology today*. London. Allen Lane.
- Guest, J. L.(1988). *Forgiving your parent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 Hebl, J. H., & Enright, R. D.(1993). Forgiveness as a psychotherapeutic goal with elderly females. *Psychotherapy, 30*(4), 658-667.
- Hope, D.(1987). The healing paradox of forgiveness. *Psychotherapy, 24*, 240-244.
- Huang, S. T.(1990). *Cross-cultural and real life validations of the theory of forgiveness in Taiwan, the Republic of Chin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Hull, J. G., & Mendolia, M.(1991). Modeling the relations of attribution style, expectancies, and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85-97.
- Hunter, R. C.(1978). Forgiveness, retaliation, and paranoid reactions. *Canadian Psychiatric Association Journal, 23*, 167-173.
- McCullough, M. E., Bellah, C. G., Kilpatrick, S. D., & Johnson, J. L.(2001). Vengefulness: Relationships with forgiveness, rumination, well-being, and the Big Fiv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 601-610.
- McCullough, M. E., & Worthington, E. L. Jr.(1995). Promoting forgiveness: A comparison of two brief psychoeducational group interventions with a waiting-list control. *Counseling and Values, 40*(1), 55-68.
- McCullough, M. E., & Worthington, E. L. Jr.(1999). Religion and the forgiving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67*(6), 1141-1164
- McCullough, M. E., Worthington, E. L. Jr., & Rachal, K. C.(1997). Interpersonal forgiving in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2), 321-336.
- Murray, R. J.(2002). The therapeutic use of forgiveness in healing intergenerational pain. *Counseling and Values, 46*(3), 188-198.
- North, J.(1987). Wrongdoing and Forgiveness. *Philosophy, 62*(242, Oct.), 499-508.
- Reed, G. L., & Enright, R. D.(2006). The effects of forgiveness therapy on depression, anxiety, and posttraumatic stress for women after spousal emotional abus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4*(5), 920-929.
- Sells, J. N., & Hargrave, T. D.(1998). Forgiveness: A review of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literature. *Journal of Family Therapy, 20*(1), 21-36.
- Smedes, L. B.(1984). *Forgive & forget: Healing the hurts we don't deserve*. New York: Harper & Row.
- Studzinski, R.(1986). Remember and Forgive: Psychological dimensions of forgiveness. *Concilium, 184*(April), 57-68.
- Takaku, S., Weiner, B., & Ohbuchi, K. I.(2001). A cross-cultural examination of the effects of apology and perspective taking on forgiveness.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20*(1-2), 144-166.
- Trainer, M.(1981). *Forgiveness: Intrinsic, role-expected, expedient, in the context of divor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oston University.
- Wade, N. G., & Worthington, E. L. Jr.(2003). Overcoming interpersonal offenses: Is forgiveness the only way to deal with unforgivenes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1*(3), 343-353.
- Webster's new collegiate dictionary(1996). Springfield,

MA:G. & C. Merriam.

fractured relationship. *Psychotherapy*, 27, 219-223.

Worthington, E. L., Jr., & DiBlasio, F. A. (1990).

Promoting mutual forgiveness within the

(2007년 10월 19일 접수, 2007년 11월 30일 채택)